

#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전승절에 즈음하여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조선로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승리 69돛에 즈음하여 7월 27일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 앞에 꽃송이를 진정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 당과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과 자기의것에 대한 사랑, 자기의 힘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안고 준엄한 전쟁의 포화를 헤치며 우리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승리전통으로 빛나는 7.27의 기적을 안아온 위대한 년대의 련사들에게 숭고한 경의를 표시하시였다.



사와 세계혁명사에 전무후무한 영웅신화이고 신생조선의 영웅성과 강대성의 기틀을 다져놓은 력사적사건으로서 이는 억만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우리 국가와 인민의 제일자산, 필승불패의 든든한 밑뿌리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조국이 강대해질수록 값비싼 희생과 불멸의 위훈으로 자주강국의 초석을 굳건히 다진 위대한 혁명세대의 영웅정신과 투쟁기풍을 순간도 잊지 말고 빛나게 계승해나가야 한다고 하시면서 전당, 전민, 전군이 선렬들의 백절불굴의 투쟁정신을 만장약하고 철저히 구현해나갈 때 우리 조국은 기적적승리와 더불어 영원히 승승

조선인민군 명예위병대의 분렬행진이 있었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참가자들과 함께 련사묘를 돌아보시였다.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전쟁의 세기》 전승세대가 피로써 전취한 조국 장구할것이라고 확인하시였다. 로 불리우는 20세기의 한복판에서 수호, 전민항전의 승리는 우리 민족 본사기자

# 위대한 전승 69돛 기념행사 성대히 진행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참석하시여 뜻깊은 연설을 하시였다



(1면에서 계속)  
항일의 전통을 빛나게 이어 부강조국건설의 새 력사를 창조한 전승세대에 드리는 축하의 꽃다발인양 무수한 불꽃들이 령명한 빛을 뿌리고 오색찬연한 불보라가 불멸의 승리상과 영웅전사들의 군상들을 눈부시게 밝히였다.  
위대한 사상의 힘, 단결의 힘으로 굴함없이 나아가는 신념의 길에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철리를 더욱 뜨겁게 새겨주며 선렬들의 고귀한 넋을 이어 우리식 사회주의의 새 승리를 앞당겨올 강렬한 지향과 의지가 어린 전승참가들의

선물을 타고 축포탄들이 연해연방 터져 울랐다.  
전화의 영웅전사들에게 드리는 어머니조국과 후손들의 숭고한 경의를 담아 밤하늘에 공화국기발과 영웅메달이 특색있게 새겨지고 《위대한 전승 7.27 만세!》라는 글발이 눈부시게 형성되였다.  
위대한 전승절을 기념하는 특색있는 공연이 시작되였다.  
공연무대에는 전시가요들과 승리의 년대들에 투쟁과 신념의 노래로 높이 울린 명곡들이 울랐다.  
출연자들은 전쟁초기부터 전인민적인 전

선란원가로, 원주격멸의 진군가로 높이 올려퍼졌던 첫 전시가요 《조국보위의 노래》와 전쟁의 불길속에서 태어난 결사항전의 노래들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의 두리에 한 마음한뜻으로 뭉쳐 미제의 무력침공을 격퇴하고 전승이라는 미증유의 사변을 이루어낸 조국방위자들의 전설적위훈을 격조높이 구가하였다.  
공화국의 첫 수호자들이 피로써 지켜낸 우리의 사상과 제도, 승리의 고귀한 전통을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해나가며 성스러운 조국을 더욱 강대하고 끝없이 번영하는 제일강국으로 력사우에 떠올릴 의지가

차민치는 종목들에 관람자들은 아낌없는 박수갈채를 보내였다.  
출연자들은 또한 제국주의침략을 반대하는 한전호에서 우리 인민과 어깨결고 싸운 중국인민의 우수한 아들딸들의 군공을 《중국인민지원군전가》에 담아 노래하였다.  
우리 혁명의 1세, 2세대들이 불비속에서 소중히 그려본 부국강병을 위하여, 이 세상 그 어떤 강적도 감히 넘볼수 없는 사회주의조선의 절대적국위를 위하여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따라 자립, 자력의 기치를 더 높이 추켜들고 영원히 강하고

영원히 승리해갈 각오를 백배해준 공연은 로동당시대 전승참가들인 《전승의 축포여 말하라》, 《우리의 7.27》로 끝났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년대의 승리전통과 투쟁기풍이 우리 인민과 세대들을 백절불굴의 애국투사들로 키우는 훌륭한 자양분으로, 새로운 승리와 기적을 끝없이 탄생시키는 진함없는 원천으로 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며 걸음 걸음 따라서는 전쟁로병들의 손을 따듯이 잡아주시였다.  
본사기자